
 금융위원회	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 font-size: 2em; font-weight: bold;">보 도 자 료</div>		
보도	2020.7.28.(화) 10:30	배포	2020.7.28.(화)

책 임 자	금융위원회 비상금융과장 이 진 수(02-2100-1650)	담 당 자	윤 세 열 사무관 (02-2100-1651) 홍 재 선 사무관 (02-2100-1652)
	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 이 동 훈(02-2100-2830)		황 기 정 사무관 (02-2100-2832)
	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장 이 석 란(02-2100-2850)		김 나 혜 사무관 (02-2100-2854)
	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 선 욱(02-2100-2860)		김 태 훈 사무관 (02-2100-2861)
	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 변 제 호(02-2100-2650)		나 혜 영 사무관 (02-2100-2652)

제 목 : 「한국판 뉴딜」이 경기회복을 이끌고,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금융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.

1 개 요

- 금융위원회는 금일('20.7.28일)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「금융리스크 대응반* 회의」를 개최하였습니다.

*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3개 대응반(금융·산업·고용) 중 하나 <참고1>

- 오늘 회의에서는 민생·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(3.24일), 기업 안정화방안(4.22일) 등의 준비·집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,
-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추진상황, 중소·중견기업 자금지원 상황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.

◆ 일시 / 장소: '20.7.28.(화) 10:30 ~ 11:50 / 은행회관

◆ 참석: (금융위) 부위원장, 사무처장, 금융정책국장, 금융산업국장 등
(관계부처) 기재부, 중기부, 산업부, 국토부 (유관기관) 금감원, 은행연합회
(금융기관) 국민, 하나, 신한, 우리, 농협, 산업, 수출입, 기업은행, 신용보증기금

2 부위원장 모두 발언

별첨 : 손병두 부위원장 모두발언

- 손병두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내수가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며 3분기 경기반등의 모멘텀이 마련되고 있으며, 경제의 리스크 요인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, 「한국판 뉴딜」이 경기회복을 이끌 수 있도록 금융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.
- 전세계적인 봉쇄조치와 경기침체로 인해 타격을 입은 수출기업들에 대한 지원과, 금융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들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.
 - 정책금융기관의 우대보증,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하고, 국내기업의 해외지점과 공장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통해 모색하고 있으며,
 - 「자동차 부품산업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」의 경우 원활하게 집행중이며, 「기간산업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」은 은행권 업무협약 등을 거쳐 다음주 중 지원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
- 금융시장이 회복되고 안정세를 보이면서 한시적으로 완화한 규제들을 정상화시키고, 금융시장의 저신용·취약부문으로 자금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.
 - 증권사 콜차입과 자산운용사 콜론 운영한도를 8월부터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고, RP 매도자의 현금성 자산 보유규제 역시 8월부터 정상화시킬 예정이며,
 - 「저신용 회사채·CP 매입기구」는 7.24일 본격적으로 매입을 개시하여 총 5,520억원을 지원하였으며, 「코로나19 P-CBO」도 5,205억 규모의 7월분 발행을 마무리 하였다고 밝혔습니다.
- 또한 「한국판 뉴딜」에서 금융의 역할을 확대하고,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전략적 금융지원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.
 - 「한국판 뉴딜」은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모험자본, 정책 금융 등을 활용하여 위험을 공유·분산시킬 필요가 있으며,

확대된 시중 유동성이 「한국판 뉴딜」 사업의 성장동력으로 활용되고, 생산적 부문으로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.

- 또한 「마포 Front1」을 통해 스타트업 기업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, 금년 내에 바이오, 비대면 산업 등 포스트 코로나로 각광받는 200개의 혁신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

-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하고, 대한민국의 도약을 이룩할 수 있도록 금융권이 더 큰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.

3 코로나19 금융지원실적

- 「민생·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」 주요 금융지원 실적

-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3.7조원이 지원되었으며,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5,354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.
- 그 밖의 중소·중견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통해 18.2조원, 회사채·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10.7조원이 지원되었으며,
- 저신용등급 회사채·CP 매입기구는 7.24일부터 매입을 개시하여 총 5,520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.

- 금융권 전체 대출·보증 지원 실적

- 7.24일까지 181.8만건, 165.3조원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.
- (업종별) 지원건수 기준, 음식점업(35.4만건)-소매업(30.3만건)-도매업(21.2만건) 順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으며,
- 지원금액 기준으로는 기계·금속 제조업(26.5조원)-도매업(21.4조원)-소매업(12.3조원) 順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.
- (유형별) 신규대출·보증이 총 137.7만건, 76.3조원 실행되었고, 기존대출·보증 대상 만기연장이 44.1만건, 88.9조원 이루어졌습니다.
- (기관별)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05.6만건/85조원, 시중은행을 통해 73.8만건/79.4조원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.

☞ 상세 통계는 <참고2>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 공표금지	본 자료를 인용 보도 할 경우 출처를 표기 해 주십시오. http://www.fsc.go.kr	금융위원회 대변인 prfsc@korea.kr	 질병관리본부 콜센터	 나부터 지키는 우리 모두의 건강
--	---	--	---	---	--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

① 금융리스크 대응반

- (구성) 금융위원장(반장), 기재부, 산업부, 국토부, 중기부, 금감원, 한은 등
- (역할) 시장별(주식·채권 등), 업권별(은행·보험·증권사 등) 동향 및 리스크 요인 점검, 금융불안 시 대응방안 마련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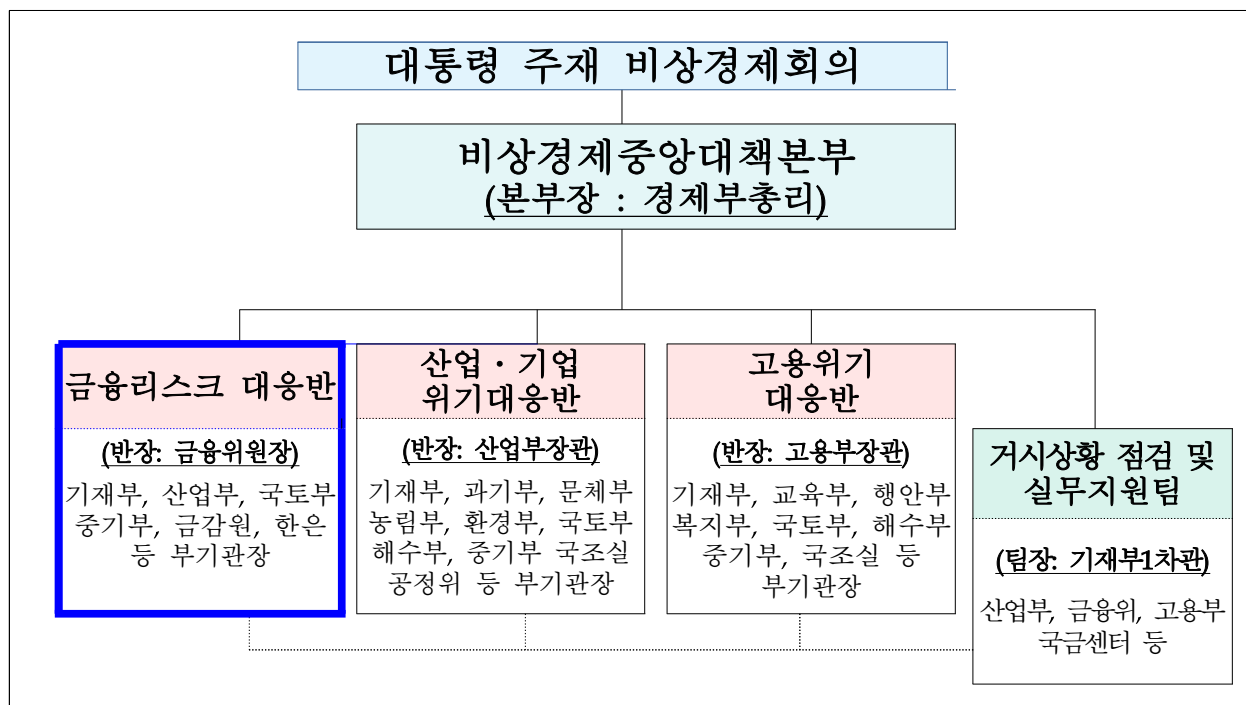
② 산업·기업 위기대응반

- (구성) 산업부장관(반장), 기재부, 과기부, 문체부, 농림부, 환경부, 국토부, 해수부, 중기부, 국조실, 공정위 등
- (역할) 주요업종 수출·생산현황 및 중소기업·소상공인 피해상황 점검, 피해극복 지원 및 경쟁력 제고방안 마련 등

③ 고용위기 대응반

- (구성) 고용부장관(반장), 기재부, 교육부, 행안부, 복지부, 국토부, 해수부, 중기부, 국조실 등
- (역할) 업종별·지위별·연령별·지역별 고용상황 점검, 일자리 안정 및 신규 창출방안 마련,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방안 등

<조직도>



□ 「민생·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」 주요 금융지원 실적

① 소상공인 대상 긴급 경영자금 신규 공급	목표금액	지원실적
•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(2.7일~) * 기은 초저금리, 시중은행 이차보전, 소진공 경영안정자금	16.4조	13.7조
•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(5.25일~) * 시중은행 위탁보증 대출	10.0조	0.54조 (5,354억원)
② 중소·중견기업 자금지원 확대	목표금액	지원실적
• 중소·중견기업에 대한 대출지원(3.16일~) * 수은·산은·기은 금리·한도 우대 대출	21.2조	13.7조
• 중소·중견기업에 대한 보증지원(4.1일~) * 수은·신보 수출기업 우대 보증	7.9조	4.5조
③ 회사채 단기자금시장 안정화 지원	목표금액	지원실적
• 증권사 유동성 지원(3.24일~) * 한은 RP 매수, 증권금융 대출	5.0조	6.6조
• 회사채·CP·전단채 차환·인수 지원(3.30일~) * 산은 회사채 신속인수 및 차환지원, 산·기은 CP·전단채 차환지원	6.1조	1.8조
• 저신용 회사채·CP매입 지원(7.24일~)	20.0조	0.6조
• 코로나 피해 P-CBO(4.1일~)	11.7조	1.7조

※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프로그램(4차 비상경제회의(4.8.) 발표)

- 개별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지원(4.29일~) : 6,739건 (529억원)
- 신복위 채무조정 지원(4.29일~, 접수기준) : 3,510건 (1,305억원)

□ 금융권 지원실적 집계(업종별·지원유형별)

(단위 : 건, 원)

음식점업	소매업	도매업	기계·금속·제조업	운수·창고업
35.4만건 11.2조원	30.3만건 12.3조원	21.2만건 21.4조원	9.9만건 26.5조원	9.4만건 6.4조원
여행·레저업	섬유·화학·제조업	숙박업	자동차·제조업	기타
6.7만건 3.4조원	4.5만건 10.8조원	2.5만건 4조원	1.7만건 9조원	60.2만건 60.1조원

구 분 ¹⁾		정책금융기관		시중은행		제2금융권		합 계	
		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
대출	신규	43.5만	28.7조	57.8만	32.7조	514건	497억	101.3만	61.5조
	만기연장	3.7만	21.2조	16만	46.7조	2.4만	0.9조	22.1만	68.8조
보증	신규	36.4만	14.9조	-	-	-	-	36.4만	14.9조
	만기연장	22만	20.1조	-	-	-	-	22만	20.1조
합 계 ²⁾		105.6만	85조	73.8만	79.4조	24만	0.9조	181.8만	165.3조

1) 정책금융기관 대출보증, 시중은행 대출실적에 「민생·금융안정패키지 프로그램」 ①, ② 포함

2) 기타 금융지원 실적(이자납입유예, 금리인하, 수출입금융 등) 제외